

# 花郎徒의 構成과 活動에 대한 社會福祉的 考察

박 경 일\*

## 目 次

- I. 머리말
- II. 花郎徒의 成立과 思想
- III. 花郎徒의 構成要素
- IV. 花郎徒의 集團活動
- V. 맺음말: 社會福祉的 意義

## I. 머리말

신라사회에 있어 청소년 집단으로서 화랑도의 존재와 그 의의에 대하여국내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국사학이나 교육학, 사회학 등의 많은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제한된 자료속에서 그 성격이나 의의를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정작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화랑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뿐만아니라 많은 문헌에서 한국적 사회복지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역사와 문화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상이나 활동을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적인 내용들을 생각해오던 중 고대 신라에서 조직화 되었던 청소년집단인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적 의의를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화랑도의 성격은 삼국통일이라는 사회적목표의 수행과 함께 당시 신라사회의 책임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랑도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화랑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조직화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집단성원들은 화랑이나 낭도로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일정한 수련활동으로서 구성원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란 달리 표현한다면 리더인 화랑아래서 일체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청소년 집단활동의 과정이랄 수 있다. 이처럼 화랑도를 구성원간의 상호작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용을 통한 청소년 집단활동의 한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는 다분히 社會福祉學 가운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集團指導方法論의 성격이나 복지활동의 요소들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화랑도 집단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회복지적 의의를 생각해 보려한다.

(1) 화랑도의 성격과 유형, 그리고 집단구성원의 조직과 크기는 어떠한가?

(2) 집단지도자로서 화랑의 역할과 퍼스널리티, 그리고 僧侶郎徒의 역할은 어떠한가?

(3) 화랑도에서 보여지는 수련활동은 어떠한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청소년 집단지도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법은 없는가?

(4) 화랑도가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적 활동을 행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들인가?

(5)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서 오늘날 집단지도방법론의 구성요소들과 상호 관련지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연구자는 三國史記<sup>1)</sup> 와 三國遺事<sup>2)</sup> 그리고 花郎世紀<sup>3)</sup> 에 나타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문헌상의 제약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를 비추어 본다는 시기상의 한계에 따라 전반적으로 추측과 유추 해석에 따라 고찰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종합학문적인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따라 연구자는 여타 사회과학의 이론을 병행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고찰의 시기를 화랑도가 국가적으로 제정된 6세기 중엽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중엽까지 대체로 1세기 기간까지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화랑도의 업적과 활동이 이 시기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이며 또한 화랑도들이 거의 이시대에 활약한 청소년들이라<sup>4)</sup>는 자료의 제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Ⅱ. 花郎徒의 成立과 思想

### 1. 起源과 組織

현재 남아 있는 문헌과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화랑도의 기원은 멀리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당시 촌락공동체적인 성격을

1) 김 부식, 三國史記, 이 병도역주, 三國史記(상, 하), 서울: 을유문화사, 1991.

2) 일 연, 三國遺事, 이 병도역주, 三國遺事, 서울: 을유문화사, 1991.

3) 김 대문, 이 태길역, 花郎世紀, 부산: 민족문화, 1989.

4) 이 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총서41, 서울: 한국연구원, 1980, P. 329.

띠고 있던 미성년집단, 청년집회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신라가 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眞興王代에 조직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재 신채호씨는 신라 화랑도 조직과 유사한 단체가 고구려에서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sup>5)</sup> 육당 최남선씨는 화랑을 [부루]교단이라고 하고 부루는 상고 조선의 고유한 신앙인 태양숭배, 곧 [밖의 뉘](광명세계)가 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부루가 한자로 적을 때 風流라고 이름한데까지 변하였다고 하여 화랑의 기원을 상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sup>6)</sup> 말하고 있다.

문헌상의 기록에 나타난 화랑의 기원은 [三國史記]와[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다. 三國史記 卷4 眞興王 37년(576)조에 보면 신라에서 화랑도의 전신으로 "여자들로서 源花를 만들었으나 남모와 준정의 질투로 말미암아 원화를 폐지하고, 그후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분을 바르고 치장하여 화랑으로 명명하고 그 중 착한자를 가리어 조정에 추천하여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고 한다. 또한 三國遺事 卷3 미륵선화 미호랑 진자사조에 보면 三國史記의 내용과 비슷한 남모와 준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고 眞興王은 신선을 숭상해서 남자의 아름다운 자를 가리어 원화로 삼았다. 이어 [始泰薛原郎爲國仙. 此花郎 國仙之始]라 하여 초대국선 즉 薛原郎의 이름을 밝히고 아울러 그것이 국선화랑의 처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화랑세기의 기원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6세기중엽 진흥왕대에 조직되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화랑도가 비록 조정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법률로서 제정된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었고 일종의 半官半民의 성격을 띠는 청년조직이었다.<sup>7)</sup>

그리고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화랑 관계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즉 화랑도는 몇 개의 화랑집단으로 되어 있고 이들을 관장, 통괄하는 國仙(花主)이 있으며 그 밑에 3,4인 혹은 7,8인의 화랑(혹은 仙郎)이 있고, 다시 그 밑에 郎徒(門戶)가 따르도록 되어 있다. 화랑집단의 내부를 보면 각기 화랑 한 명과 僧侶郎徒 한 명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眞興王代의 화랑 사다함이 낭도를 1천명이나 거느렸다는 기록<sup>8)</sup>에서 볼 수 있듯이 화랑에 따라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정도의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도식화 시켜보면

國仙(花主)-----花郎(仙郎)-----郎徒(門戶)로 조직되어 있다.

<총단장> <각급단장> <단부의 단원>

화랑도의 수련방법은 三國史記 卷4 眞興王 37年條에 [或相磨以道義 或相悅

5) 신채호, 조선상고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p. 261 262.

6)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88, p. 151.

7) 이기동, 신라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1980, p. 332.

8) 三國史記. 卷44 列傳제4斯多舍傳.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즉 도의를 닦고 가락으로 즐거이 놀며 명산과 대천에 돌아다니며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들의 수련방법은 道義相濟를 통한 이성도야, 가락을 통한 정서도야, 遊娛山水를 통한 신체도야를 위하여 집단생활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수련방법은 교육과 실제경험을 통한 학습방법으로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 2. 思想과 機能

화랑도의 사상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과 신앙에서 우러러 나온 것인 만큼 간단히 단정할 수는 없다. 三國史記 卷 4 眞興王 37年條에 최치원의 [鸞郎碑序]에 [國有玄妙之道曰風流--] 즉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 이른다. 교의 기원은 선사에 있고 3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집에 들어 오면 효도하고 나아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주지 그대로 이며, 그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없는 교를 행하는 것은 주규사(노자)의 종지이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을 행함은 석가의 교화 그대로이다.”라고 한 것에서 볼 때 儒, 佛, 仙의 3교를 조화, 통합한 사상이라 하겠다.<sup>9)</sup>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화랑도의 정신은 三國史記 卷 4 원광서학에 귀산과 추항이 원광법사를 찾아가 계명을 받은 사군이충, 사친이효, 임전무퇴, 살생유덕, 봉우유신의 화랑오계가 있으며, 이들 화랑오계를 분석해 보면 忠, 孝, 勇, 仁, 信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 景文王편에 보면 경문왕 金應廉이 국선으로 있을 때 현안대왕이 “무슨 異事를 보았는가”하고 묻자 美行있는 자 셋을 보았나이다. 즉 “남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 겸손하여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이 그 하나요, 남보다 호부(壕富)로되 그 차림이 겸소한 이가 있으니 그 둘째요, 본래 귀한 세력이 있으나 그 위엄을 쓰지 않는 이가 있으니 그 셋째입니다”<sup>10)</sup> 라고 한 三異정신으로서 겸손, 겸소, 인자를 들 수 있다. 이것을 정두병씨는 해석 여하에 따라 三美 혹은 三德이라 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왕이 異事를 물은데 대답한 것이니 오계에 대비하여 三異라고 붙인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랑도에 삼이의 정신이 내포되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이며 화랑들이 오계로서 수행의 철칙으로 지켜온 동시에 이러한 3가지 미덕인 삼이를 숭상하였다.<sup>11)</sup>

이와같이 화랑도정신은 신라정신의 중추이며, 삼국통일의 역군인 화랑의 지도이념이요 나아가서는 생활철학으로서, 화랑도들에게 세속오계의 정신을 실천

9) 김충렬, 화랑오계와 삼교사상의 현실적구현, 화랑문화의 재조명, 신라문화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0집,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1989, p. 138.

10) 三國遺事 48대 景文王편, [見何異事 郎曰 臣見有美行者 王曰 清聞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 而愛謙坐於人下其一也 有人豪富而衣儉易其二也 有人本貴勢而不用其威者三也.

11) 정두병지음, 花郎徒, 형설출판사, 1988, p. 35.

하고 삼이로서 덕목을 몸에 배이게 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화랑의 정신과 사상은 화랑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원리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인간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다. 사회복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문직이 가진 가치관이나 사상 그리고 도움을 주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념과 정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에 있어 집단지도 방법론의 가치관으로서 正義와 責任을 들고 있으며, 정의의 의미는 성별, 경제적 배경, 교육정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책임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의 권리를 찾는 동시에 남의 권리도 찾아주어야겠다는 인식과 모든 사람은 서로 협조해야겠다는 개념이다.<sup>12)</sup>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종교는 이러한 가치개념을 포함시켰으며 어떠한 직업이나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화랑도의 정신과 사상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복지학의 가치관과도 어느정도 일맥 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화랑도의 정신과 사상 즉, 충 효 용 인 신과 겸손, 검소, 인자는 생명의 존엄성을 받아들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은 상호협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기 위한 가치요소들로서 볼 수 있으며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화랑도는 당시 신라사회의 正義實現과 責任있는 靑少年像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知에따라 행하는 知行合一主義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충.효.용.인.신과 겸손.검소.인자를 그들의 정신과 가치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화랑도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인재양성의 교육적 기능 ②전사단으로서의 군사적 기능 ③신라귀족사회의 신분계층 갈등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기능 ④주술적 종교제의로서 신앙적 기능 ⑤정서함양과 가무유오의 예술적 기능 ⑥유불도를 포함한 사상연마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기능이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속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 사회적, 시대적 배경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온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 Ⅲ. 花郎徒의 構成要素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이란 집단유형이나 구성원의 층원방법,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집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총괄적인 개념이다. 사회과학적 이

12) 문인숙 저, 집단사회사업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pp. 23 24.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론과 조사에 있어서 집단구성(Group Composition)이란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은 사회적 요소의 기준들로부터 연구될 수 있으며, 또한 집단구성원의 능력과 같은 퍼스넬리티 요소, 집단의 크기와 참여자의 속성들과도 관계가 있다.<sup>13)</sup>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화랑도를 분석해 보고 社會福祉學과 관련된 의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花郎徒의 性格과 類型

화랑도가 그 기능의 측면에서 보아 어떠한 성격의 집단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많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많은 연구들로부터 화랑도의 성격은 크게 ①전사단, 무사단이라는 견해 ②무당집단이라는 견해 ③가무조합이라는 견해 ④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라는 4가지 견해로 대별된다.<sup>14)</sup> 이 가운데 최재석씨는 화랑이 전사단이 될 수 없다는 5가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단적으로 三國遺事 卷3 백을사에 나오는 ‘국선 부예랑이 천수 4년에 낭도(珠履:붉은 가죽신을 신은 사람) 1000명을 이끌고 金蘭(현재 통천)을 지나 北溟(원산부근)에 다달았을 때 적에게 잡혀갔는데 이때 門客(낭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되돌아왔다’는 기사를 인용하여 만일 화랑이 전사단이라면 도적이 나타났다고 하여 화랑이 잡혀가는데도 천명이나 되는 화랑집단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되돌아 올리는 없대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의 역사적 기록에 충실할 것 같으면 신라시대의 화랑은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고<sup>15)</sup> 김충렬씨가 제시하는 “화랑도 자체는 문무를 가릴 것 없이 신라의 청소년을 하나의 有爲한 인격으로 길러내는 국가적 운동이었고 개인적 수양이었다. 성장해서 국가에 봉사할 때 文에 나가면 賢佐忠臣이고 武에 나가면 良將勇卒이다”<sup>16)</sup> 라는 견해를 대표적으로 들고 화랑도의 성격을 인재양성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학에서 집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집단의 성격을 G. Wilson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중심집단과 집단구성원의 퍼스넬리티의 성장을 중시하는 성장중심집단으로 대별하고 있다.<sup>17)</sup>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집단의 종

13) M.E.Hartford, Groups in Social Work : Application of Small Group Theory and Research to Social Work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p.95.

14)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p.478.

15) 최재석, “화랑의 사회사적 의의”, 화랑문화의 재조명, 신라문화선양회,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0집, 1989, pp. 73-81.6

16)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 아세아연구 14-4, 1971, p.206, p.221

17) Wilson, “Social Group Work, Social Group Work:

Trend an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Work, WASW, OCT, 1956, pp.65-75.

류<sup>18)</sup>를 보면 상호교류집단(mutual sharing group), 교육집단(education group), 토의집단(discussion group), 과업중심집단(task-oriented group), 성장집단(growth group), 치료집단(therapy group), 사회화집단(socialization group), 자조집단(self-help group) 등 다양한 명칭으로서 명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화랑도의 집단성격은 교육집단과 과업중심집단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본래 신라조정이 화랑도를 제정한 공식적인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려는데 있었다. 그런데 신라에 교육기관으로서 이른바 국학(신문왕 2년 682)이 설치된 것은 삼국통일의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화랑도를 제정할 당시(眞興王 37년 576)에는 이렇다할 교육기관이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화랑도는 인재를 발견하기에 앞서서 이를 조직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교육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이 화랑도를 한국고대의 독특한 교육체제로 보려는 것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데서 나온 것이다.

과업중심집단의 성격으로서는 당시 치열한 삼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즉 삼국통일이라는 신라인들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현좌충신이 여기서 솟아나오고 어진 장군과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한 김대문의 단평은 화랑도가 하나의 과업수행 혹은 훈련집단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실례는 三國史記 卷44 斯多含傳, 卷4 眞興王朝에 의하면 眞興王 23년(AD 562년)에 이미 화랑인 사다함이 부장이 되어 낭도들과 더불어 가야국 정벌에 종군하여 큰 공로를 세운 것이나 화랑 관장, 김흠운, 김유신 등의 전투수행활동에서 잘 볼 수 있다. 여기서 화랑도의 성격을 교육집단이나 과업수행집단으로 볼 때, 이것은 결국 신라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좌충신과 양장용졸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화랑도의 구성원들의 참여나 가입조건에 따라 화랑집단을 개방집단(open group), 폐쇄집단(closed group)인가로 구분해볼 때 화랑집단은 개방집단으로 추측된다. 당시 신라사회가 골품제도의 정비에 의하여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화랑집단의 낭도들이 집단구성원으로서 가입과 참여가 비교적 자유스러웠다. 이러한 사실은 제32대 효소왕대 죽지랑의 무리 가운데 낭도인 득오(得烏)가 있어 “風流黃卷”(화랑등록부로 추정)에 이름을 올리고 날마다 仕進(출근)하드니 한 열흘동안 보이지 아니하였다. 죽지랑이 그 어머니를 불러

---

18) 이런 집단의 분류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집단이든지 집단구성원의 목표나 집단의 목표를 묵시할 수 없는 것이며,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의미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결속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퍼스널리티의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어느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집단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집단일지라도 집단발달단계에 따라 집단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니 군부대장인 익의(益宜)가 아들을 부산성 창고 지기로 임명하였으므로 급히 가느라 郎에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三國遺事 卷4 二惠同鹿에 보면 僧侶 혜숙은 호세랑의 낭도로 섞여 지내더니 郎이 이미 황권에서 이름을 지우자 혜숙도 또한 赤善村에 은거하여 20년이 되었다. 이때 국선 최공이 그 교외에서 하룻동안 사냥을 할때 혜숙이 길가에 나와 따라가기를 청하니 이에 公이 허락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한 화랑의 낭도가 될려면 화랑도의 등록부인 황권에 그 이름을 올려 놓아야 했던 것 같다. 거기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등록하고 활동을 같이 하면 낭도로서 그룹구성원이 되었던 것 같다.

뿐만아니라 三國遺事 卷1 김유신편에 보면, 공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이 되었다. 이때 어디서 온 자인지도 모르는 白石같은 고구려의 첩자가 끼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花郎世紀의 利花郎에 보면 문노(文弩)가 당시 郎徒로 있을 때 무리 500명을 이끌고 (문노는 郎徒의 우두머리격으로 추측함) 사다함을 따르니 그 위세가 토함공보다 성대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집단구성원인 낭도나 僧侶郎徒들의 집단간 이동도 비교적 개방적이었다고 추측된다.

오늘날 개방집단도 3가지 모델로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간가입(drop-in) 혹은 중간탈퇴(drop-out) 모델로서 누가 집단구성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 매우 융통성이 있는 접근법으로서 집단구성원 자신이 집단을 선택하고, 가입 기준도 매우 범위가 넓다. 둘째는 대체모델(replacement model)로서 전형적으로 고정된 구성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집단의 크기도 집단목적에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단 구성원이 탈퇴할 때 그 빈자리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셋째는 재형성모델(reformed model)로서 집단 구성원들은 일련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고 이때 재형성된 집단에는 이전의 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들로서 이루어지는 개방집단 모델이다.<sup>19)</sup>

여기서 문헌상의 제약으로 가입과 탈퇴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황권(黃卷)이라는 등록부에 접수하고 삭제함으로써 어떤 화랑도의 구성원이 되고 되지 않는 비교적 가입과 탈퇴가 자유스러운 개방집단임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간 것이나 호세랑의 낭도인 승려 혜숙이 국선 최공의 허락 하나만으로 중간에 이들 집단에 참여한 것과 낭도 문노가 무리 500명을 이끌고 화랑 사다함의 집단에 속해졌다는 기록의 예로서 미루어 볼 때, 화랑도는 開放集團모델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성원 자신이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간가입, 탈퇴모델로서 유형화시켜 볼 수도 있겠다.

19) M. Henry, "Revisiting Open Groups", *Groupwork* 1(3), 1988, pp.215-228.



전체적으로 화랑집단의 기원과 그 형성발달을 볼 때 眞興王 37年條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미모의 낭자를 선발해서 화랑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는 기사로서 국가에서 화랑을 세워 그들을 받들게 한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민간전래의 습속을 당시 위정자 측에서 인재양성이나 등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화랑과 그 郎徒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들의 활동을 권장하는 정책을 세워 화랑을 제도화 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20)</sup> 그러므로 화랑집단은 자연발생적인 집단(natural group)에서 진흥왕대에 인위적 집단(formal group)<sup>21)</sup>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2. 花郎徒의 構成員

### 1) 集團構成員의 指導者로서 花郎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화랑집단의 구성원은 國仙, 花郎, 郎徒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낭도들이 주된 멤버들이었다. 이들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이나 자격을 보면, 국선과 화랑들은 진골출신의 귀족자제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郎徒들의 자격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낭도들 중에는 평민층의(3두품 이하) 자제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는 士卒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만큼 王京에 거주하는 3두품이하 1두품에 이르는 평민층의 자제도 포함되었을 것이며, 한 화랑을 따르는 郎徒가 斯多畝의 경우 1000여명 이었다고 한 것을 보면 낭도까지 모두 귀족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낭도 중에는 아마 평민의 자제가 많았을 것이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화랑집단의 구성원들은 진골귀족에서부터 일반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 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구성원 가운데 화랑은 신라사회의 엘리트인 청소년집단의 지도자로서 볼 수 있고, 총괄 리더는 국선으로 생각할 수있으며 출신성분은 진골 귀족자제들 이었다. 이처럼 화랑이 진골귀족 출신이었던 이유로는, 첫째, 당시 신라가 귀족지배적 국가였다는 점과 둘째로 이러한 단체를 운영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셋째, 화랑도의 지도자는 계급적 지위와 높은 수준의 학문과 교양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들수 있다.<sup>23)</sup> 그러면 이들 화랑이 집단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어떠한 지도력을 가졌는가를

20) 김동욱, "화랑도와 신사도와 선비도", 화랑문화의 재조명, 전개서, pp. 38-39.

21) 남세진씨도 가장 기본적인 집단의 분류는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대부분의 집단은 형성집단에 속한다고 하였다. (남세진,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p. 85.)

22) 이기백,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학보 제6집, 1977, p. 194.

23)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1948, p. 128.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도자는 모두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특성이론(Trait Theory)으로서 즉 지도력은 개인의 퍼스넬리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지도력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상황이론(Situation Theory)으로서, 지도자의 구체적 행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서, 리더는 生得的인 것은 아니고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셋째 유형은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Theory)으로서 지도력은 집단형성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성원은 상호관계에 의해 집단내에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고 상대적인 역할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지도력은 추상적인 인격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집단내의 다양한 요소(집단의 목적, 구조, 성원의 태도 등)를 갖고 있는 복잡한 인간과 그 환경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서 결정된다는 것이다.<sup>24)</sup> 여기서는 특성이론에 입각하여 문헌상에 나타난 화랑도들의 지도력인 퍼스넬리티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화랑도의 퍼스넬리티

출 처	화랑명	퍼 스 넬 리 티	
三國史記 卷47 列傳7	金 令 尹	인덕이 높고 신의가 두터움	
	官 昌	남과 사귀기를 잘함	
卷48 列傳8	金 欽 運	눈물을 잘 흘리고 격분	
	劍 君	진실로 의가 아니면 천금의 이익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음	
花 郎 世 紀 5세	斯 多 舍	사람 사랑하기를 내몸과 같이 함	
	7세	郎 徒 郎	郎徒들의 좋은 점을 좋게 여김
		原 郎	선비에게 겸손하고 재물을 나누어 사람들을 도와 줌. 향가에 능하고 맑은 놀이를 좋아하여 雲上人
8세	文 弩	무예를 좋아하고 협기가 많아 護國仙	
14세	虎 林	마음가짐이 곧고 맑음.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	

24) 雀部猛利著, 社會福祉學講義Ⅱ, 海聲社, 1987, p.56~57.

이상으로서 화랑도의 수령으로서 리어더였던 화랑은 용모가 수려하고 신의가 깊으며 동시에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사교성이 풍부한 퍼스낼리티를 지닌 진골 귀족출신의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생활신조는 정의와 명예를 숭상하고 지켜나갔으며,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상의 특성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공통적인 특성의 하나로서 자기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화랑도들의 복지적 활동 즉 자선활동과 별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화랑도의 숫자 상의 집단 크기(Group Size)를 보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일천명에 이르고 있어, 화랑집단을 소집단으로 보기보다는 大集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 卷44 斯多舍<sup>25)</sup>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들) 화랑으로 받들기를 칭하므로 부득이 말았는데 그 무리가 무려 1000명으로 모두 그들의 환심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孝昭王代 화랑인 부예랑(夫禮郎)을 國仙으로 삼으니 珠復를 신은 무리(郎徒로 추측)가 천명이었다<sup>26)</sup>고 한다. 역시 孝昭王代 죽지랑(竹旨郎)이 그의 낭도 득오(得鳥)를 찾으러 갈 때 죽지랑의 무리 137인도 위엄과 예의를 갖추고 따라갔다<sup>27)</sup>는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화랑도의 집단크기는 100명 이상에서 1000여명으로 이루어진 대집단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대집단이 어떠한 집단조직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박찬우씨는 “集團的 寄宿制度”라 하였으며<sup>28)</sup> 한기언씨는 이처럼 한사람의 화랑을 중심으로 하여 수 많은 낭도가 기거를 같이 하였음은 마치 근대 독일인의 “전원 교육장”을 방불케하여 독일 청년운동의 한 형태였던 [俟鳥](Wander Vogel)운동에 비유<sup>29)</sup>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백명 이상의 화랑집단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기숙할 수 있었으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조직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한편 집단구성원들의 연령을 보면 三國史記에 사다함은 15, 16세, 김유신은 17세(三國遺事 18세), 김응렴은 三國史記에 18세, 三國遺事に 15-18세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략 15-18세로 추정된다.<sup>30)</sup> 이것은 후술하는 화랑집단의 발달기간이 대체로 3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 (2) 僧侶郎徒

화랑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사람의 승려가 낭도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에

25)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斯多舍.

26) 三國遺事 卷 第2, 塔上 第4 栢栗寺.

27) 三國遺事 卷 第3, 孝昭王代 竹旨郎.

28) 박찬우, “화랑집단의 교육제도와 그 실제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연구보고서 12, 1962, p. 13.

29) 한기언, 교육원리, 삼국출판사, 1961, p. 35.

30) 이기동, 전계서, p. 340.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대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어째서 청소년들의 모임인 화랑도의 단체 속에 성인인 승려를 낭도의 한사람으로 포함시킨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헌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여기서는 단지 僧侶郎徒의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집단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三國遺事 卷 2 景文王편에 18세에 국선이 된 金應廉(후에 景文王)이 範敎라는 스승에게 물었다<sup>31)</sup>라는 기록이 있다. 특히 범교의 경우에서 僧侶가 낭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치 또한 알 수 있게 한다. 낭도 가운데 우두머리인 範敎師가 국선인 김 응렴의 장래에 유익한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보아 국선을 가까이서 받들고 모시는 오직 한사람의 어른 낭도이므로 徒衆의 우두머리(徒之上首)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또한 화랑 귀산과 추항이 원광법사에게 화랑도의 정신적 사상인 화랑오계를 받아 그들의 계명으로 삼은 것이나 진평왕 때 神僧으로 알려졌던 惠宿은 일찌기 국선 好世郎의 낭도였으며 호세랑이 국선에서 물러 났을때 혜숙도 또한 물러나서 赤善村이란 마을에서 20년을 은거하였다.

또한 三國史記 卷 第 47 列傳7 金歆運에 보면 흠운이 어려서 화랑 문노의 門에 있을 때 僧侶郎徒 전밀(轉密)이 김흠운의 성격을 보고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三國遺事 卷 第 5 融天師에 보면 혜성이 心大星(중심이 되는 큰별)을 범하는 것을 보고 낭도들이 그만 두려할 때 융천사가 혜성가를 불러 없었으므로 낭도들이 풍악에 놀러갔다. 또한 경덕왕 19년(760)에 해가 두개(二日)나타난 괴변이 생겼을 때, 월명사가 도술가를 불러 괴변을 소멸하게 해주었다<sup>33)</sup>는 기록 등을 참고로 할 때, 僧侶郎徒는 특수한 신분의 낭도로서 청소년 낭도에 있어서는 스승이었으며, 이 스승은 낭도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화랑에게 충고와 교육을 철저히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화랑 김응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존경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마 예우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4)</sup>

이기백씨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승려는 최고 귀족층의 한 분자인 동시에 최고 지식인으로서 화랑도에 섞여서 지적, 정신적 방면에 활동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의 三品彰英씨도 화랑도 안에서 僧侶들이 교훈, 지도의 기능 이외에 향가를 짓기도 하였다<sup>35)</sup> 고 한것을 볼 때, 僧侶郎徒는 화랑도의 구성원으로서 종교적 가르침은 물론 철학적 사고나 정신교육, 그리고 정서교육을 담당하

31) 三國遺事 卷2, 景文王〔郎徒之上首 範敎師者聞也〕

32) 김영태, "승려郎徒考-花郎徒와 佛敎와의 관계 일고찰", 불교학보 제7집, 불교문화연구소, 1970, p. 265.

33) 三國遺事 卷 第 7, 融天師, 도술가.

34) 정두병, 전계서, p. 21.

35)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東京:平凡社, 1974, p. 254.

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박승길씨는 僧侶郎徒의 존재를 화랑도의 敎政團體의 성격을 인정할 때 그 의미가 들어 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僧侶郎徒는 求濟財(Heilsg tern)의 획득의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선화랑의 구제재 획득을 보증해 줌으로써 낭도들에게 구제재의 보시와 가무를 통한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된다<sup>36)</sup> 고 하고 있다.

이상으로 僧侶郎徒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역할과 기능상으로 볼 때, 그는 화랑도에 있어서 화랑이나 낭도들에게 명령자나 지배자의 관계는 아닌것 같다. 그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매개자(mediator)이며, 구성원이나 집단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난에 처했을 때 주술적인 신통력을 발휘하여 측면에서 원조하는 조력자(helper)이며, 종교적 전파나 정신적 지도를 한 교육자(educator)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집단지도방법론의 기원을 19C의 인보관이나 Y-Club, Scout조직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의 원조자들은 인보관위커 혹은 Y, Scout 리어더라고 불리워 졌으며<sup>37)</sup> 당시 이들의 역할도 원조자나 지도자나 종교적 전파자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집단지도방법론의 기원에서 볼 때 그룹위커란 청소년 집단을 원조하고 교육시킴에 있어서 승려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는 동서양의 차이 그리고 시대상의 차이일뿐이지 그들이 행했던 역할과 기능은 거의 유사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한 신분의 성인 낭도로서 청소년 낭도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화랑에게 교육과 그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측면에서 원조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僧侶郎徒는 오늘날의 청소년 집단지도전문가(Group Worker)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행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룹위커는 집단지도자로서 성원과 집단이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노력을 촉진시키기위하여 집단 내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집단 내외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그룹위커는 집단과정, 행동, 과업성취 등 집단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8)</sup>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을 행했다고 해서 승려낭도를 오늘날의 그룹위커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집단지도방법론에서 집단의 형성과 조직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자가 그룹위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랑도 집단의 조직화와 형성에 대해서는 문헌상

36) 박승길, "신라 花郎徒의 교정단체적 성격과 그 사회학적 의의",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2집,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p. 49.

여기서 氏는 Heilsg tern을 승려郎徒가 財物로써 구제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승려가 재물로써 화랑을 구제하는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Heilsg tern은 신통한 힘으로서 구제하는 능력 즉 求濟才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용천사나 월명사의 예에서 주술적인 신통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37) R. W. Roberts & H. Northen eds, Theories of Social Work with Groups, New York: Columbia Uni. Press, 1987, p. 4.

38) 金鍾玉, 權重燮 편저, 집단사회사업방법론, 홍익재, 1993, p. 194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으로 보아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眞興王대에 제도화된 것으로 보아 국가나 관청이 깊이 관여하였지만 승려나도가 인위적으로 조직화했다는 문헌상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IV. 花郎徒의 集團 活動

#### 1. 花郎徒의 修鍊活動

화랑이 행했던 수련활동은 전술한 바와같이 크게 道義相磨, 歌樂, 遊娛山水 3가지가 있을 뿐 이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방법 즉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은 볼 수 없다. 이 3가지를 유추해 본다면 道義鍊磨는 화랑이나 낭도들이 이성적인 슬기를 터득하여 그 사회에서 우수한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여건을 갖추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을 것이며 가무를 통하여 서로의 우정과 집단의 공동 의식을 도모하고 예술적인 정서적 훈련을 행하였다. 그리고 遊娛山水를 통하여 국토와 자연에 대한 애착심과, 체력단련, 나아가 신라와 인접한 국경지역(특히 금강산 주변에 화랑 유오지가 많이 나옴)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에 이용했을 것이다. 특히 화랑도들이 명산대천을 수련터전으로 삼아 전국을 두루 섭렵하고 다녔기 때문에 최현씨는 화랑도의 수련활동은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계획의 바들산(바다. 들. 산) 활동과 같은 자연체험활동을 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여행중심의 현장교육 성격을 갖게 되어 현장참여 생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9)</sup>고 한다. 이렇듯 화랑도들은 심신단련, 도덕수행, 친목단결, 정서오락 등 청소년 생활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수행을 해나갔다.

이러한 화랑들의 3가지 수련활동을 최재석씨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표 2>와 같이 구체적으로 수련내용<sup>40)</sup>을 제시하고 있다.

39) 최현, “花郎徒의 교육이념과 수련활동에 관한 재조명”,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청소년연구원, 1991, 겨울, p.159.

40) 최재석, “화랑의 사회사적 의의”, 전계서, p.61 62.

〈 표 2 〉 화랑도의 수련과정

山 水 遊 娛	道 義 相 磨	歌 樂 相 悅
① 오락적 행위	① 충용무협존중	① 청소년의 기상양양
② 향토의 명산대천 소요	② 우정 독실	② 예술적생활 장려
③ 국토대자연에 대한 애 착심	③ 부강	③ 가무, 풍류에 의한 명 량한 성격과 고아한 취미
④ 심신단련	④ 민족의 전통신앙 승양	④ 지합단결훈련
⑤ 지리적 지식습득	⑤ 오계삼이정신 체득	⑤ 평화안정
⑥ 선미의 인간성양성	⑥ 효제충신덕행 연마	⑥ 공동체의식
⑦ 상호협동의 생활	⑦ 불, 도, 유교사상 연마	⑦ 예술생활 장려
⑧ 국토순례(순체)	⑧ 상호부조, 화합단결	⑧ 청년의 용기 고무
⑨ 향토답사	⑨ 인재등용	
⑩ 우정관계성립	⑩ 순국정신	

위의 3가지 이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수련활동으로는 三國遺事 물계자의 이야기에 그의 문하에 들어오는 낭도들에게 제일 처음의 질문이 “너 습시켰을 아느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의 단전호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김유신이 열박산에 들어가 기마, 궁술, 창 등을 훈련한 것이 있다<sup>41)</sup>. 그리고 僧侶郎徒인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었을 때 경덕왕이 다구한벌을 하사한 기록과 충당사에게 경덕왕이 茶道와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시켰는데 이 두가지 과제에서 다도는 화랑의 수행과목인 道義鍊磨의 수련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충당사의 다도 이야기를 화랑을 뽑아쓰기 위한 시험의 한 형태로 이해할 때 다도가 화랑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道義鍊磨의 한가지였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단학수련이나, 무술, 다도도 정신적 지도자인 僧侶郎徒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화랑도들이 수련했던 활동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화랑도의 수련활동기간이 어느정도였던가를 생각해 볼 때 현존 문헌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찾을 수 없지만 대개 3년을 서약, 수련, 의무기간으로 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川前里 書石의 銘文 가운데 “成年六月二日 永郎成業”이라 한 것과<sup>42)</sup> 또한 경주 근교 월성군 견곡면 금장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소위 壬申誓記石에도 “두사람이 함께 결심한 바있어 서약하여

41) 정두병, 전게서, p. 44 57.

42) 황수영, 한국금석문유문, 1976, p. 35.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맹세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충도를 굳게 지키고 그릇됨이 없기를 맹세한다<sup>43)</sup>고 하여 3년이라는 것과 성업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이것이 수련활동기간이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 또한 화랑들의 수련활동기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三國史記 卷41 김유신전(上)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진평왕 建福12년(594)생으로 15세에(609) 화랑이 되었고 건복 28년(611)에 국경을 침범하는 국가들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중악(中嶽)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고 4일 후 노인 난승(難勝)으로 부터 비법을 배웠으며 건복29년(612)에 홀로 인박산(경주부근의 산) 골짜기에 들어가 수도하였다고 한다. 그의 전기 가운데 오직 화랑이 된 15 18세때까지의 3년동안의 사실만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서 이 3년간이 화랑들의 수련기간으로 생각된다<sup>44)</sup>.

여기서 특히 수련활동 가운데에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것은 화랑 개인이나 신라 청소년들 간에 있어 [誓約]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있어서 새로운 자아정체감(ego-identity)<sup>45)</sup>을 몸에 익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서약의 방식은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또는 문헌상에서 “이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식의 각오나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서 자아정체감의 개성적이고 인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그 인간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며 그 자아정체감은 새로운 행동에의 자부심과 사명감 또는 자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랑 영랑이 成業하겠다고 한 것이나 임신서기석에 충도를 굳게 지키고 3년 이내에 시, 서, 상, 예를 익힐것을 맹세한 것이나, 김유신이 홀로 석굴에 들어가 비법을 배워 18세 국선으로 된 것 등을 미루어 이 서약은 자기자신과의 反省的 討議를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이 서약의 방식이 당시 화랑집단들의 道義相磨의 한 프로그램<sup>46)</sup>에 속한 것이지 僧侶들의 조언에 의한 것인지, 개인 스스로 행한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 집단지도에 있어서 자아상이나 주체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약기법”이나 “자기암시기법”으로 명명하여 집단지도방법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43) 상계서, p. 48.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

44) 이기동, 전계서, p. 339 340. 여기서 氏는 난승을 주술적인 힘을 가진 샤먼으로 보고 있다.

45) Erikson (1963)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통합조정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기회가 일치되어 성공적인 동일시가 일어날 때 얻어진다고 한다.

46) 集團指導方法論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란 과정 그자체로서 과정의 일부로 되고 있는 정점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집단캠프를 갈 때 캠프 그 자체만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준비에서부터 끝마칠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프로그램인 것이다. (武田建, 大利一雄共著 新クルハウワク YMCA, 1987, p. 115.



기법을 개발하면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본다.

(2) 花郎徒에 나타난 慈善活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랑집단이 산수를 유오하면서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화랑오계의 정신(특히 事親以孝와 朋友有信)과 정의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사회복지적 활동과 방법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이를 예증해 놓은 자료는 없는 것 같다. 단지 앞의 (표 2)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화랑도의 도의상마라는 구체적인 수련내용 가운데 상호부조의 실천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 이것 또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화랑도들이 義와 仁의 사상을 몸소 실현한 기록이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회복지발달사의 시기상으로 보면 신라사회가 고대국가라는 점에서 화랑도들이 상부상조의 활동을 행하는 시기였다고 추측하나, 문헌에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진골 귀족출신인 상류층의 자제들인 화랑들이 시혜적인 활동을 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 연구자는 상부상조활동보다는 자선활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화랑도들에게서 나타난 자선활동의 내용을 보면 三國史記 卷4 斯多舍전에 사다함이 전공을 세우자 왕이 전답과 포로 200인을 상으로 주니 포로는 자유민으로 삼고, 전답은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sup>47)</sup>과 花郎世紀에 나타난 7세 薛原郎<sup>48)</sup>도 자기몸을 굽혀서 선비에게 겸손하고 재물을 흠어 사람을 도와주니 낭도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다. 12세 菩提公<sup>49)</sup>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낭도들의 우두머리로서 어찌 혼자만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상(당시의 상으로는 금전을 포함한 전답이었을 것으로 추측함)을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니 부모처럼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무릇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과낭주(만용낭주로서 부인)가 함께 가서 위문하고 보호하니 당시 사람들이 두성인에 견주었다고 한다. 14세 虎林<sup>50)</sup>도 마음가짐이 맑고 곧았으며 재물을 흠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脫衣地藏이라고 칭하였다. 이와같이 화랑도들은 자기집단의 낭도들이나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인적, 물적자원으로서 善行과 德行 즉 慈善活動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그리고 三國史記 卷48 列傳8 孝女知恩<sup>51)</sup>에 보면 효종왕이 낭도들과 함께 경주 남산에 유오할 때 두 모녀가 슬피 울고 있는 내용을 듣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청하여 집의 곡식 백석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었으며, 또 知恩이를 산

47) 三國史記 卷 4 사다함 [放爲良人 田分與戰士 國人美之]

48) 이태길역 花郎世紀 7세, 설원랑 [放爲良人 田分與戰士 國人美之]

49) 이태길역 花郎世紀 12세 보리공 [凡有患難之人 公與娘主 階往慰護]

50) 이태길역 花郎世紀 14세 호림 [公執心清直 散財施衆]

51) 三國史記 권48 列傳 제8 孝女知思 [歸請父母 輸家粟百石及衣物豫之 郎徒機千人名 出粟一石爲贈]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良民이 되게 하였더니 낭도 몇 천명이 각기 곡식 한 섬씩을 내주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租 5백석과 집 한채를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자의 4케이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물을 나누어준 자선활동이었다면, 효종랑의 케이스는 낭도들이 함께 참여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띤 집단적인 자선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문헌상의 기록으로 화랑도의 복지적활동을 5사례 밖에 찾지 못했으나 당시 화랑의 추천기준이 착한 자<sup>52)</sup>덕행 있는자<sup>53)</sup>이었음을 볼 때 고대 신라사회에 화랑도에 의한 자선활동이 널리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고대사에 대한 기술이 왕조 중심이므로 화랑이나 낭도들의 상호부조활동이나 자선활동에 대해 특이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기술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화랑도의 자선활동이 당시 고대국가에 의한 공적 구휼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화랑오계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善行과 德行 그리고 정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그들의 일상 생활신조에서 우러러 나온것으로서 우리는 민간 청소년집단에 의한 자선활동으로 평가 해 볼 수도 있겠다.

### V. 맺음말 : 社會福祉的 意義

이상으로 연구자는 화랑도의 집단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문헌상의 제약과 현대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가지고 과거의 화랑도를 고찰한다는 관점 시기상의 차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추측과 유추해석의 위험도 없지 않았음을 시인한다. 여기서는 고찰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사회복지적인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화랑도의 집단구성상에서 볼 때, 화랑도의 성격은 교육집단과 과업중심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당시 신라사회의 삼국통일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를 양성한 사회적 목표 수행집단으로 있겠다.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화랑도집단은 구성원의 참여가 비교적 자유스러운 개방집단이며, 개방집단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가입, 탈퇴가 융통성있는 중간가입, 탈퇴(drop-in, drop-out)모델의 집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집단의 크기를 보면 대략 수백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원의 숫자상 대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원과 형성발달에서 볼때 자연적 집단에서 眞興王대에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형성집단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랑도에 있어서 집단구성원의 지도자는 화랑으로 볼 수 있고, 문헌상에 나타난 이들의 퍼스널리티는 신의가 깊으며 사교성이 풍부하였지만 공통적인 특성의 하나로서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특성을 지녔기에 사회복지

52) 三國史記 卷4, 眞興王 37년조 [擇其善者 薦知於朝]

53) 三國遺事 卷 第3, 미륵선화 미호랑 진자사조 [選良家男子有德行者]

적 활동인 자선활동을 널리 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화랑도 가운데 성인인 僧侶郎徒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세속오계나 향가등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에 지적, 정신적 활동과 정서교육을 유도하고, 어려운일에 처했을 때 원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행하였음을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 집단지도자와 유사한 기능을 행했다고 추측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의 집단지도자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화랑도의 활동을 수련활동과 자선활동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먼저 그들의 수련활동으로는 크게 道義相磨와 歌樂, 遊娛山水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개인의 사회화에 이바지 했으며, 현장체험 학습으로 심신의 단련과 함께 지덕체를 연마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단편적인 자료로서 단학수련이나 무술, 다도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술한 몇몇의 문헌에 의하면 화랑도들은 “서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랑도들의 서약의 형식을 오늘날의 청소년 집단지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서 [서약기법] 혹은 [자기암시기법]이라는 명칭으로 전문적 기법을 개발해 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이렇듯 화랑도들은 이러한 수련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집단참여에서 나타나는 효과 즉 사회화, 주체성과 자아성확립, 교육과 학습, 가치, 신념, 태도의 형성과 변화, 집단의 변화<sup>54)</sup>를 습득하여 신라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헌상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그들의 복지활동을 살펴보면 화랑들이 개인적인 자선활동을 행한 것이 4케이스, 집단적인 자선활동을 행한 것이 효종왕의 1케이스로서 매우 미약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의 기록이 왕조 중심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민간활동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화랑도들은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방법과 활동을 행하였을 것이며, 당시 화랑의 추천 기준이 착한자, 덕행있는 자이었음을 볼때 그들의 복지적 활동이 널리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화랑도의 자선활동은 당시 고대국왕에 의한 공적구휼정책에 비하여 민간 청소년집단에 의한 자발적인 자선활동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오늘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지도방법론적인 성격과 요소를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서 많이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집단지도방법론이 다음과 같은 4대 구성요소 즉 집단(Group), 집단구성원(Group member), 집단지도자(Group worker),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열거하고 있으며, 화랑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집단으로서 화랑도’, ‘집단구성원으로서 국선, 화랑, 낭

54) M. E. Hartfort, Ibid, 1971, p. 31 50.

##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도', 그리고 '집단지도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한 것으로서 僧侶郎徒', '프로그램으로서 道義相磨, 歌樂, 遊娛山水 등의 수련활동'이라는 4가지 요소를 서로 대비시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랑도가 집단지도방법론적인 성격과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집단으로 보지만 오늘날의 집단지도방법론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 가운데에서도 집단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당시 계층사회였으므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였으며, 집단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도출하지 못하고 단지 3년의 기간으로만 추측하였으며, 그리고 현존문헌으로는 대집단인 화랑들이 프로그램을 행할때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 등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화랑도가 비록 현대적의미의 집단지도방법론을 활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속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적인 가치관이나 자선활동 그리고 집단지도방법론의 구성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때 화랑도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은 다분히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인 가치와 활동들을 밝혀내는 연구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